제43회 무역의 날

축 사

(7분)

2006. 11. 30(목)

대 통 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무역인과 근로자 여러분,

마흔세 번째 '무역의 날'을 축하합니다. 오늘 수상하신 분들께도 거듭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마다 무역의 날에는 축하할 일이 많아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참여정부 첫 해인 2003년에는 수출이 3년 만에 두 자릿수 증가율을 회복했습니다. 2004년에는 수출 2천억 달러를 달성했고, 작년에는 무역규모 5천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3천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여정부가 출발할 때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원화 절상과 고유가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이룬 성과라 더욱 값진 것입니다.

해외에 나가보면 수출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피부로 실감할 수 있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 기업의 광고판을 볼 수 있고, 우리가 만든 제품이 일류상품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기업인과 근로자 여러분이 밤낮없이 땀 흘려 노력한 결과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국민을 대신해서 큰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기업인과 근로자 여러분,

지금 우리를 둘러싼 무역환경이 만만치 않습니다. 수출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세계 각국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적극 나서고 있고,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이 우리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환율과 유가부담도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수출과 내수의 단절도 걱정입니다. 대기업들은 호황을 누리는데 비해 중소기업은 여전히 어렵고, 내수와 일자리 사정도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출이 늘어날수록 부품 수입이 함께 증가하는 현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법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토대는 기술혁신과 인재양성입니다. 참여정부는 이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왔습니다. R&D 예산만해도 2003년 6조5천억 원이던 것이 올해 8조9천억 원이 되었고, 내년에는 10조원 가까이 될 것입니다.

첨단기술개발을 지원해서 자동차·조선·반도체·휴대폰과 같은 수출주력제품의 부가가치를 더욱 높여 가겠습니다. 새로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차세대 성장동력을 산업화하는 일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기술혁신 역량을 높이는데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지원방식도 시장친화적으로 바꿨습

니다.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벤처생태계 조성, 해외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도 늘려나갈 것입니다. 특히 부품·소재 산업을 육성해서 수출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내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수출을 활성화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지식서비스 수출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수출입금융 등에서 서비스가 상품무역과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해운과 관광산업도 수출산업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서비스 수출은 물론, 고급일자리가 많은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나갈 것입니다.

플랜트 수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기술과 가격, 신속성 면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출이 더 많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동과 같이 플랜트 수요가 많은 나라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자무역망 등 수출인프라를 차질없이 확충하고, 한류 확산과 연계해서 국가이미지 개선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참석자 여러분,

한미 FTA는 선진경제로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세계 최대시장에서 우리의 입지를 강화하고, 서비스산업

의 경쟁력을 높여 경제구조를 선진화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미 FTA는 충분한 검토와 사전 준비를 거쳐 시작한 것입니다. 농업과 같이 어려움을 겪게 될 분야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추가적인 보완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협상이 조속히, 그리고 반드시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업인과 근로자 여러분,

저는 우리 경제의 앞날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업인 여러분이 기술혁신에 혼신을 다하고 있고,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비며 해외시장을 넓혀가고 계십니다.

함께 힘을 모아 협력하는 사례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이 늘어나고 있고, 노조가 해외투자설명회에 함께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는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을 위한 노사정협약이 이뤄지면서 항만의 경쟁력을 높이고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렇게 해나가면 수출 5천억 달러, 무역규모 1조 달러 시대도

머지않아 열릴 것입니다.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는 이미 눈앞에 와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힘차게 도전합시다.

다시 한번 무역의 날을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큰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